2020년 9월 6일[제 40권 36호]

Two Wings 1500 Vision

담임목사 **강승신**

경기도 부천시 자봉로56
전화 032.345.8031-2
팩스 032.345.8033
홈페이지 www.ylch.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큰날개 주일예배

	전통예배 오전 11:00	축제예배 오전 11:00	젊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예배로의 부름 찬양 영원한 왕 예수		노피어 찬양단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고백과 헌신	기도 이승길 장로 성도의 교제 간증 정하윤 자매		기도 김한규 형제 광고 및 환영
말씀과 결단	잠언 1장 7~8절 (구약 911) **지혜의 외침** 설교 담임목사		
축복과 파송	봉헌 오직 믿음으로 축도 담임목사		봉헌 나의 백성이 축도 담임목사

공동체예배 15:00

가정 예배

9월 예배위원

[다음주 기도]

축제예배 강애진 집사
젊은예배 고진희 간사

[봉헌]

전통예배 백현숙 이미선
축제예배 박형훈 라종선
박현숙 윤선정 이미란
젊은예배 김민지 최민선

수요기도회 19:30

가정 예배

10월 봉헌위원

[전통예배]

나승미 정현숙

[축제예배]

김영일 임경진
강미령 정은주 최현순

오늘의 말씀

지혜의 원칙

[잠언 1장 7~8절]

첫째, 먼저 (　　)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난제, 그러나 문제는 (　　)에게 있다.

둘째, 난제를 풀기 위해 (　　)를 놓치면 안된다.

작은날개 목장나눔

지식의 근본

[잠언 1:1-15]

W
WELCOME
환 영

ICE BREAK를 해봅시다.

W
WORSHIP
경 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기도합시다.

W
WORD
말 씀

나의 아침 습관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아침마다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먹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Q
QUESTIONS
질 문

1. 잠언이 쓰인 목적은 무엇입니까?(2-4절) 모든 지식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7절)

2. 훈계를 듣고 말씀을 배워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8-9절) 지혜로운 자는 어떤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까?(10절) 악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11-13절)

3. 최근 내가 얻은 지혜와 훈계는 어떤 내용입니까? 또 내가 깨우쳐야 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보기에서 골라 나눕시다.
- 인간관계 / 오래된 습관 / 언어 / 사고방식 / 가치관의 변화 / 신앙훈련 / 재정관리 / 가족 / 업무나 학업의 능률 향상 / 기타

4.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번 주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해보고 합심하여 서로 도고기도 합시다.

W
WITNESS
증 거

이번주 행복모임의 진행현황과 베스트와의 관계맺기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W
WORK & PRAYER
기 도

돌봄이 필요한 목장가족이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1) 문제를 맡기며 기도
2) 베스트와 행복모임을 위해 기도
3) 치유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4) 축복기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

- 청년A-1목장 홍창의 형제 -

안녕하세요. 청년 A-1목장 홍창의 청년입니다.

교회의 방향성에 맞춰 가기 위하여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양육반을 수강하였습니다. 양육반을 수강하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오랜 기간 느끼지 못하였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가고자 하는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명확한 방법을 알 수 있었던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찬양 사역도 성가대 및 싱어 그리고 찬양단 리더까지 10년을 하였습니다. 신앙 생활과 교회 사역을 오래 할수록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사역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그로 인한 고민으로 인하여 사명감도 더욱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역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잃어버린 사역에 대한 소중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사역을 함으로 생겨버린 교만함 이었습니다. 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향유를 붓는 마리아가 되기를 원했지만 저의 삶은 나사로의 죽음에 늦게 오신 예수님을 책망하는 교만한 마르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양육반을 시작할 때에도 기존에 알고 있는 신앙들을 Remind하자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반을 받으면서 저의 삶이 얼마나 세상적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 하지만 저의 삶에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관여를 하시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에 대한 질문에 굉장히 부족한 삶이었다는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양육반에서는 매일 수레바퀴의 삶인, 맥체인 성경 읽기, 매일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기, 큐티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과제들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모든 것을 매일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고자 찬양 사역을 하기 위해 예일교회에 왔음에도 수레바퀴의 삶 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에 더욱 겸손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제들을 이행하면서 어느덧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와 기도, 성경 읽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나니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이 느껴졌고 그토록 다니기 싫었던 회사가 전도의 현장으로 느

껴졌습니다. 또한 양육 후반부에 배웠던 백지 전도를 옆 건물에 다니는 친구에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숙될 수 있도록 해주신 양육반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또한 양육반을 하면서 15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하여 명확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도, 정착, 양육, 제자학교, 세계비전제자대학 1,2기의 과정을 통해 신앙을 처음 접하는 어린 신앙의 소유자를 한 명의 비전을 가진 영적 리더로 성장시키는 프로세스의 내용들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 훈련하시면서 사역자로 키우셨던 모습들이 생각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 신앙이 성숙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번 양육반을 수료하면서 교회에서만 예수님 중심하고 세상 속에서 무너질 수 밖에 없었던 연약한 저를, 신앙 생활을 오래 한 것을 하나의 교만으로 삼고 살아왔던 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일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의무감과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으로 임해왔던 사역에 잊혀졌던 행복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열정적인 말씀과 현재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에 지혜롭게 대처하여 교회의 영성을 더욱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숙된 그리스도 인으로서 주어진 사역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도록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목사님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칼럼

연약한 것이 축복입니다

세계 여러나라 사람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빈국 중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고 북한 사람들도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5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행복감은 실제 생활과 많이 다릅니다. 특히 경제나 삶의 여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풍성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여건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것들이 의미가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으면 위대한 힘을 내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찌르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 때문에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성숙과 변화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사람의 가시와 함께 삽니다. 그 가시 때문에 인격이 고매해지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겸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12:7)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 속 사탄의 사자, 바울을 직접 찌르고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 어려움 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시련, 연단, 훈련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아가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일차전도여행 때 중도 포기한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결별하면서까지 자기 의를 내세운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대 신학자요 영적으로는 최고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가보았습니다. 인간의 교만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몸에 찌르는 가시를 두고 교만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신 것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갈 4:14). 자신 만이 아니라 다

른 사람까지 시험들게 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신앙인은 가시가 찌를 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후 12:8~9).

믿은 좋은 사람도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신음하고 몸부림치게 되지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게 하십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자랑거리를 만듭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게 있는 장점입니다. 인물이 좋거나 머리가 명석하거나 옷을 잘 입던가 좋은 집에 살던가 횡재를 만났거나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얼마 못갑니다. 잠깐은 자랑할 수 있으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자랑거리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연약함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육체의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쓸데없는 것을 알게 되고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나는 배신했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사람에게는 이런 자랑거리자 많아야 합니다.

주석학자 이상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6세 때 발에 병이 났습니다. 40일을 작정기도 했는데 더 심해져서 3년 동안 출입을 못했습니다. 그 때부터 앉아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민간요법 약을 얻어다가 붙였는데 독이 올라서 평생 발을 쓰지 못했습니다. 대학도 검정고시로 들어갔습니다. 꼼짝 않고 앉아서 성경암송,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주석학자가 되었고 자기를 쳐서 한국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수술을 했는데 발에서 1.5cm짜리 철사 토막이 나왔습니다. 어려서 맨발로 뛰어놀 때 찔린 것입니다. 수술 후에 그 철사 토막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이 가시가 나를 오늘의 학자가 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금주 도고기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 목사님에게 영적 담대함과 민감함을 허락하시어 언제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2. 가을사역을 위해서
- 다음주부터 가을 사역이 시작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온 성도가 비전 안에서 열정으로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달려가게 하소서.

3. 선교사를 위해서
- 인도에서 파송된 이광수 선교사가 입국해서 온라인 사역중입니다. 사역과 비자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 7호 단기선교사 비자가 열려서 필리핀으로 파송될 수 있게 하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

1. 최용환 형제
- 취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심을 신뢰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 박진경 자매
- 가족과의 관계가 평안하도록 성령님 우리가정의 주인되어 주옵소서.
- 하고 있는 공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지혜를 주옵소서.
- 가을 사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금주의 감사

- 예배를 방해받은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하게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 모두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게 감사합니다.

-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성령 안에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주 소식

1. 이번주 금요기도회와 다음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예배 시간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 다음주일(9/13)에는 가을사역선포식이 진행됩니다. 각 목장에서는 행복모임을 구성해서 알려주시고, 사역국에서는 사역을 정비하여 가을 사역이 힘있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양육과 훈련이 다음주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훈련생들은 일정과 훈련 진행 방법을 미리 확인하시어 훈련 받는 일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양육반 – 주일 오후 4시 30분
   제자학교 – 주일 오후 4시 30분
   제자대학1학기 – 토요일 오후 5시
   제자대학2학기 – 화요일 오후 8시

4. 회복캠프와 리더캠프의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이번주 금요일부터 리더반이 진행됩니다. 금요일 오후 8시에 진행이 되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리더들과 훈련생들은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봉사

[청소]

본당 : 여성C-2목장(강미령 목자)

준2층,계단 : 여성D-1목장(양나윤 목자)

2층 : 여성B-4목장(임영미 목자)

3층 : 여성A-3목장(한미라 목자)

비전홀, 멀티룸, 화장실 : 청년공동체

새가족 섬김이

김규리 성도 (섬김이 : 이해경 권사)
이현지 자매 (섬김이 : 고진희 간사)
데니스 형제 (섬김이 : 진우성 형제)

우리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세계비전을 품고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전체가 모여 감동적인 축제로 드리는 대그룹의 축제예배이며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목장모임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동안 그들을 찾아 쉬지 않고 섬기고
복음전하며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세우기 위해 앞장서며 열정으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예 배 시 간

전 통 예 배	주일 오전9시
축 제 예 배	주일 오전11시
절 은 예 배	주일 오후1시 30분
공 동 체 예 배	주일 오후3시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7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주일 - 금 새벽5시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9시 30분
유 아 부	주일 오전11시
유 초 등 부	주일 오전9시
청 소 년 부	주일 오전9시
작은날개모임	목장별 정한시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강승신	장 로	이성근 이승길
전 도 사	장효진		
원로목사	강경원	원로장로	최기준

온라인으로 예일교회를 만나는 방법

스마트폰	QR코드 어플을 사용하세요.
홈페이지	www.ylch.org
모바일홈	m.ylch.org
페이스북	Yeil0691 Church
KT올레TV	CH888, 예일교회 검색
온라인 봉헌	농협 351-0446-923973(예일교회)

마을버스
51, 51-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시내버스
5번, 12번, 20번, 5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75번 (역곡 남부역 하차)

시외버스
83번, 88번 (역곡 남부, 괴안동 입구)